원빈과 나의 외모가 공평한 지점

(시편 97:1~12)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3.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6.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빈과 나의 외모가 공평한 지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빈과 나의 외모가 공평한 지점'
제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빈과 나의 외모가 내게 공평하게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는 수애 씨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수애와 나의 외모가 공평하게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에 모든 삶을 집중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부터 지금 놓인 상황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생활화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육체로 거하는 삶의 현장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삶의 현장을 빠져나와서 하늘과 십자가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십자가 바깥쪽에는 몸이 처한 세상의 실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면,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임하심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당한

태도를 보일 때에야 삶의 현장에 대한 나의 죽음도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올바르게 유지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뜻이 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방해받지 않고 나의 죽음이 유지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유지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제목의 '원빈과 나의 외모가 공평한 지점'입니다.
원빈과 나의 외모는 실제로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취할 때에 삶의 현장에 대한 죽음은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본 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의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먼저 의(義)란 무엇일까요? 신학에서는 '칭의(稱義)'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뜻합니다. 이전에도 의를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의롭다 칭하심은 쉽게 말해 '너 내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기준과 기호에 맞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나의 이름을 통해 행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태도는 첫째는 의롭고 둘째는 공평해야 합니다. 의와 공평이 붙어서 등장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고 오늘은 오늘 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와 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1절을 보면 광복절 선언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억압받던 우리 조상들이 8·15해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만세를 외치며 길거리에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상황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의 36년보다도 더한 억압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무게의 억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짊어져야할 삶의 무게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아도 삶이 살아집니다. 그것도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설령 몸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마음은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치하에서 사셨음에도 평강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식민치하로부터 오는 삶의 무게조차도 벗어버릴 수 있는 해방 중의 해방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면 이런 해방감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독일 유학시절에 주말이 되면 학교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서 해방되어 가벼워진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웃통을 벗고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잔디밭에 뒹굴고 난리가 납니다. 고작 주말이 주는 가벼워짐이 이토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주심으로 인해 생기는 가벼움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빚을 지고 있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그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처한 삶의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즉 마음이 십자가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십자가 안쪽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의와 공평을 인정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스리심의 핵심의 특성이 곧 의와 공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이 십자가 안쪽에 머물고 몸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라는 말은 구름과 흑암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금의 상황은 옳지만 그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흑암으로 그를 둘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기에 정당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변명을 하실 필요도 없고 변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육체를 포함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한 지혜로 인해 나타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를 인정하고 맞장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다스리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서 공평(公平)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은 마음을 십자가 안쪽에 두고 몸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최고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이 비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 외모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나타난 최선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TV드라마를 보니 원빈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빈 씨의 얼굴과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 같은 인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최선이고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옆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원빈 씨에게는 저런 외모를 주셨고 왜 나에게는 이런 외모를 주셨는가에 대해 불만이 생깁니다. 원빈 씨의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해보면 정말로 내 외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시달리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나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참가한 동창회에서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되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열등감이 생기고 부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이 열등감과 부러움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평하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은 미루어지고, 수행하심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 나의 마음이 공평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도록 궤도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외모의 준수함으로 인해 마음이 우월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보다 전혀 낫지 않음을 깨닫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전혀 우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지점까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세상기준을 따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와 공평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공평은 곧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차이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공평이 느껴질 만큼 십자가 안쪽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으로 배부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육체가 속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끄시고 살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삶은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처음과 끝이 순교자에서 왕까지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목동에서 시작해 왕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상식적으로 순교자에 자리에 서겠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 안쪽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참으로 신비한 일이 나타납니다. 순교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왕 된 사람과 차별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기준으로는 순교자와 임금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순교자와 임금님의 가치 차이가 1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임금님의 차이는 100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순교자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금님은 100억에 1을 더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기준으로는 순교자와 임금님의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100억이라는 막대한 가치 앞에서 1의 가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원을 받게 된 사람이 1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평함에 의심을 가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1원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100억이나 1000억의 가치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순교자와 임금님 사이의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기준에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또 어떤 사람은 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동사무소의 공무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동사무소의 공무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만족과 기쁨에 대해 공평함을 누리는 이들을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원빈과 나의 외모가 공평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십자가 안쪽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져서 의와 공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교자와 임금님의 차이를 엄청난 차이로 바라볼 것이고, 노숙자와 부자의 차이를 놀라운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노숙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임금 삼겠다는 군중들을 물리치시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아버지로 마음이 가득 차셨기 때문에 임금과 노숙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100억짜리 가치의 하나님을 포기하고 1원짜리 재벌총수가 되겠다고 온 마음과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에 갖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에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쪽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물을 틀어놓으면 차오르듯이, 십자가 안쪽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해질 때에 육체를 포함한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자 동네가 뒤집혔고, 거지같았던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가 뒤집히는 바탕이 깔리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안 되고 장관이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의와 공평으로 맞장구침을 통해서 인생의 강박감의 막중한 무게로부터 8·15해방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내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몸을 포함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생애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